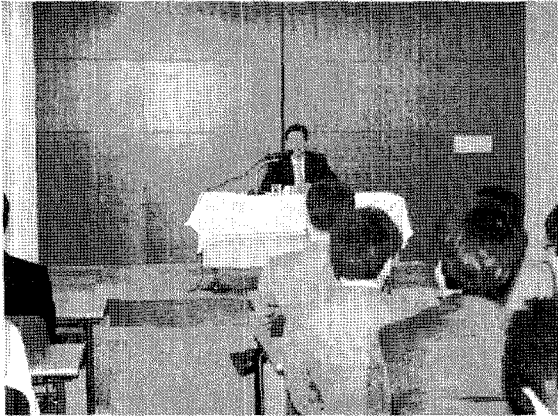


우리회 가치창조, 직원과의 대화로 풀어간다

개인과 진흥회의 발전을 위해 독서경영 전개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으로 지난 4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직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간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요구에 맞춰 전환기에 놓여있는 진흥회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개인의 성장과 진흥회의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하고, 기존 생각의 틀, 혹은 관습적인 업무의 틀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꿈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직원들의 질문

에도 진솔한 답변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최 부회장은 독서경영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만을 도모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직접 작성한 편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술경매 사상 최고가 갱신

sbs 「아이디어 하우스」에서 150억 원에 낙찰

기술경매 사상 최고가인 150억 원이 터졌다. 특허청과 우리회가 지원하고 있는 SBS-TV 「아이디어 하우스」 프로그램(발명의 날 특집방송)에서 기존 최고가인 30억 원의 다섯 배 금액으로 낙찰된 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화제의 기술은 “유아용 비데”로서 개발자는 경북 하이브리드부품 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김성욱 공학박사.

김 박사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해왔는데, 이번 기술도 몇 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이라고 한다.

유아를 눕혀서 따뜻한 물로 용변을 닦아내고 온풍으로 물기를 말려주며, 수납함에 들어있는 파우더나 기저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또한,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유아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것도 큰 특징이다.



한편, 김 박사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도움으로 기술이전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시작한 시작품제작지원사업에서 올해 SBS의 기술경매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하우스」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프로그램 제작비와 시작품 제작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허·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시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개인발명가 및 중소 벤처기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최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로 무상 지원하였다.

김 박사의 <유아용 비데>도 발명의 날 특집방송을 위해 2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어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특허청과 우리회는 앞으로도 시작품 제작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최대한 지원해 줄 예정이다.